

## 초원의 땅, 몽골을 찾아서

몇 해 전 몽골의 사막에서 쏟아지는 별과 은하수가 그리웠다. 다시 그 별을 보기 위하여 몽골을 간다. 그 때와 달라진 것은 모두 우리 학생들로만 팀이 구성되었다. 이런 답사에 거의 동행하셨던 권 교수님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우리끼리 인천 공항에서 만났다. 11시 40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 9시에 만났다. 100년 만의 가뭄이라 할 정도로 긴 가뭄이 이어지더니 비도 쏟아졌다. 지난 번 힘들었던 몽골행이 떠올랐다. 사실 정시 출발은 기대조차도 않고 왔다. 당연히 몽골 가는 길은 어렵다고 믿고 있다. 지난 번 대한항공은 저녁 7시 출발 예정이던 것이 새벽 두시에 출발하였다. 으레 몽골 가는 길은 그럴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그런 믿음과 달리 9시 40분경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탑승 수속을 밟고 간단한 선물 등을 준비하고 탑승구에서 우리 일행을 만났다. 어린 학생들이 많았다. 비행기를 처음 타는 아이도 있다. 모두 흥분된 듯하다. 기다림이 길어질 것에 대비하여 어제 구한 「초원의 나라 몽골을 가다」라는 책을 읽었다. 책의 내용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읽어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도 꽤 있었다. 비행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시에 출발하였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여행이 시작될 때면, 땅이 꺼지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반가워하고 있을 쏟아지는 장대비에도 신경이 거슬렸다. 땅은 꺼지지 않고 비행기는 곧 이륙하였고 두꺼운 구름을 뚫고 순항고도에 올라섰다. 하늘은 온통 파랗고 하얗다. 두 시간 넘게 하늘을 날은 후 한 구름이 걷히고 서서히 땅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물길이 보이긴 하지만 풀 한 포기 눈에 띄지 않는다. 아마도 이미 몽골 땅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네이멍구 상공 어딘가를 날고 있는 것 같다. 30분쯤을 더 지나면서 착륙 준비를 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그러고 보니 아래는 끝없는 초원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번 우리가 달렸을 것이라 생각되는 초원길도 끝이 없다. 초원에선 달리면 길이다. 곧 울란



사진 1 울란바타르 공항 주변



사진 2 울란바타르 무사 도착기념

바타르가 눈에 들어왔다(사진 1). 비행기는 거의 정시에 징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몇 해 전과 너무 달랐다. 당시는 예약해둔 호텔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날이 밝은 아침이었던다. 공항에는 소나기가 지나갔는지 바닥이 촉촉하게 젖어 있다. 그래서인지 공기도 상쾌하다.

부지런히 움직인 우리 일행은 오후 3시 50분경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체첵과 그의 부모를 만났다. 체첵은 이번에도 우리의 훌륭한 통역사이자 가이드이다. 지난 번 우리는 모두 그에게 감동하였던 바 있다. 자기 일에 너무 완벽하게 충실하였기 때문이다. 지난번보다 체첵 아버지는 더 건강해진 모습이고, 어머니는 더욱 미인이 되어 있다. 자동차는 올해도 그레이스 두 대이다. 전 보다 일행이 줄었으니 타고 다닐만하다. 이번에 우리와 함께할 기사는 이미 얼굴을 익힌 저리거와 처음 보는 강별더이다. 저리거는 이틀 전에 얻은 아들 포함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고 강별더는 총각이다(사진 2에서 오른쪽에서 4번째가 저리거이고 두 번째가 강별더이다). 저리거는 지난번에 열흘이 넘게 우리와 함께 움직였지만, 거의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 그렇게 우직하게 생긴 청년이다. 적당히 짐과 사람이 나누어 타고 공항을 벗어났다. 출발 시간이 4시인 것을 보니 꽤나 신속하게 움직였나보다.

공항 앞과 시내로 이어지는 길은 여전하다. 울퉁불퉁한 시멘트 포장길, 나무 판으로 울타리를 두른 가옥, 뽕양게 흩어지는 먼지와 자동차 매연 등 변한 것이 거의 없는 듯하다. 모든 것이 눈에 익다. 몽골에선 어느 도시를 가나 거의 같은 경관이다. 처음엔 참 낯선 경관이였다. 처음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다. 마치 시골 소년이 서울에라도 올라온 듯 모든 것에 서투를 놀러뒀었다.

첫 정차는 화력발전소 앞이다(사진 3). 전적으로 화력발전소 사진의 필요성 때문이었는데, 일행에겐 좀 미안한 일이다.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발전소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온수 파이프는 서울에선 볼 수 없는 것으로 울란바타르에서 볼 수 있는 큰 특징임이 분명하다. 나는 학생들에게 내가 보아온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한다. 그런 후 그



사진 3 울란바타르 화력발전소와 온수 파이프

것이 왜 다른가를 생각하라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볼거리이다. 사회주의 시절 중앙에서 온수를 공급하던 것이다. 이 온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일이 꼬인다는 것을 몇 해 전 몸으로 실감하였던 바 있다.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 차가운 물은 만지는 것도 힘들 정도였다. 지하수라 너무 차갑다. 이 년 전에도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발전소 배경의 사진을 담았던 기억이다. 체첵 아버지(몽흐바타르)는 친절하게도 발전소 앞까지 우릴 안내하였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몽흐바타르씨는 이야기만 꺼내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사실 더 이상의 가이드는 없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가이드이다. 몽흐바타르는 관광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아마추어이지만, 우리에게겐 어떤 프로보다도 더 편안한 안내자이다.

오후 5시 무렵 숙소인 호텔에 도착하였다. 작고 아담하지만 걸으로는 꽤 세련되어 보인다



사진 4 첫 밤과 마지막 밤의 호텔(므흐칸호텔)

(사진 4). 세련이란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 호텔에서 자보면 곧 세련이 뭔가를 알게 된다. 마지막 밤도 이 호텔이었는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호텔 앞 길거리는 큰 소나기가 지난 듯 곳곳에 물웅덩이가 넘치고 있다. 호텔 주인은 체첵의 고모라고 하는데, 주인이 누군가



에 관계없이 아담하고 깨끗하였다. 아침으로 먹은 우유에 밥을 끓인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기내식으로 점심을 넘긴 터라 배가 고프다. 그것을 아는 몽흐바타르가 택한 첫 코스는 식당이다. ‘볼스’라는 샤브샤브 식당이다. 물론 한국인임을 고려한 선택이다. 지난 번 몽흐바타르는 몽골 음식에 적응 못하는 우리 일행들로 맘고생을 크게 하였던 바 있다. 지난 번 여정에는 아마추어 여행자가 많았던 것 같다. 샤브샤브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먹을 수 있게 도구가 마련되어 있다. 식당에서 간단한 서로의 인사와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몽골에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 이번이야 비로소 그간 받았던 선물의 의미를 조금 깨달았다. 점심을 굶다시피 한 사람들답게 참 잘도 먹었다.

식당 앞은 서울거리였다. 가로등의 디자인에 낯익은 서울의 상징이 걸려 있었다. 몽골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가까이 백화점(국영 백화점)을 찾았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필요한 물건(컵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일행 전체가 백화점에서 쓴 돈은 1만원도 안 되는 것 같다. 백화점을 나와 보니 해가 완전히 기울었다.

수흐바타르 광장을 찾았다. 광장은 어둑거리고 있지만 동네 사람, 관광객 등이 모여들어 북적거린다. 멀리서는 천둥 번개가 으르렁거리기도 하였다. 이 광장은 사회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그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장소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모습에선 어떤 이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냥 우리와 똑같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뿐이다. 9시가 넘어야 광장에 불이 들어오고 그래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린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하루를 접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아니 몽골에서의 모든 날이 기다려질 것이다.



사진 5 저녁의 수흐바타르 광장